

부담없이 즐기는 유쾌한 知的 게임

퀴즈 및 퍼즐도서 큰 인기 끌어... 전문출판사들도 출현

“‘32’ ‘체중의 18%’ ‘약2리터’ 등은 모두 인간의 몸에 관계가 있는 숫자이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예문당 편집부가 펴낸 「연막전술퍼즐게임」의 한 문제다. 이러한 질문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상식나부랭이’ 하나하나가 모여 인류의 집적된 지식이 생겨났다고 한다면 결코 작은 물음이 아닌 것이다.

시중서점에 나와 있는 문답식퀴즈서적들은 이러한 자질구레한 상식에서부터 학생들의 교육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주부들의 살림에 지혜를 더해주는 내용 등 그 범위가 넓고 깊다.

‘~을 찾아라’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

이러한 책들은 어린이, 중고생, 어른을 대상으로 많은 종이 서점에 나와있는데 “소리없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이 이련류의 책을 주로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의 설명이다.

우선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책으로는 「월리를 찾아라」(마틴 헨리포드, 대교)의 선풍적인 인기를 등에 지고 「~을 찾아라」라는 제목의 여러 책들이 나와 있다. 월리시리즈는 지난 1월에 첫선을 보인 이후 「환상의 세계여행」 「시간의 여행」을 계속 대교출판사에서 발행하면서 아직까지 그 열기가 식지않고 있는 상태이다. 「환상의 세계여행」은 ‘먹보장터 수도사들의 싸움’ ‘하늘을 나는 양탄자’ ‘깊은 바다속의 잠수부’ 등 동화적인 요소와 함께 여러나라의 풍습이나 관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또 「시간의 여행」은 원시시대-이집트-로마-바이킹-십자군-중세-아즈텍 최후의 날-고대일본-프랑스혁명기 무도회-19C말 미국-미래의 세계를 돌아다니는 월리를 찾으면서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 외에도 「둘리를 찾아라 서울 서울 서울」(백명식, 바른사) 「수수께끼의 주인공을 찾아라」(미츄시다치요시, 지경사) 와글와글 퍼즐탐정시리즈의 「리사를 찾아라」 「샘의 야옹 대행진」(앤소나 텔라리코, 푸른마을) 등이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면서 ‘월리찾기’를 뒤따라 오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전래 민담, 설화, 소설을 소재로 한 「뒤죽박죽이 옛날이야기속으로의 모험」(백명식, 바른사)은 한국적인 소재를 찾았다는 평을 받고 있기도하다.

‘월리찾기류’ 아동도서는 독자층이

일반인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문답식 퀴즈서적들은

자질구레한 상식 이외에도 생활의

지혜까지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상식과 경험, 그리고 집중력을

동원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재미가

솔찮다.

이러한 책들은 대개 국민학생들을 주 독자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독자층이 이에 머물지 않고 있다. 영풍문고에서 월리를 열심히 찾고 있는 어느 중2 여학생은 “친구들끼리 생일선물로 주기도 해요. 그림이 재미있고 여럿이 누가 먼저 찾느냐는 놀이도 할 수 있어요. 좋아요”라며 눈길을 다시 월리에게 돌린다. 대교출판사의 전애영(관리과·21)씨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책이라는 관념-글이 있고 줄거리가 있는-을 버리고 아이들의 시각에서 아이들에게 각 장의 그림을 설명해주면서 찾기를 즐긴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TV 퀴즈프로그램 겨냥한 책 많아

TV 퀴즈프로그램의 내용을 담은 도서 또한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 있는 책들이다. 이러한 책들로는 「중학생 퀴즈왕」(홍구암, 대일) 「장학퀴즈 1·2」(민현기, 이성과학실) 「최신방송 퀴즈백과」(홍구암, 대일) 「퀴즈대학」(홍구암, 대일) 「MBC 퀴즈아카데미」(주철환, 까치) 「알뜰살림 주부퀴즈」(박희성, 동풍문화) 「알뜰살림 장만퀴즈」(장원) 등이 있다.

이러한 책들은 대부분 TV프로그램의 인기 여하에 따라 책의 인기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들어 현재 sbs에서 방영중인 「알뜰살림 장만퀴즈」를 겨냥한 두권의 책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문제 출제경향을 분석, 예상문제 818개를 수록하고 있는 「알뜰살림 주부퀴즈」와 sbs프로그램담당자들이 1백회까지의 방송 기술문제를 엮어 펴낸 「알뜰살림 장만퀴즈」는 주부들에게 잔잔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 책들이 TV퀴즈프로그램 참가대상자들의 필독서는 되지 못하는 듯하다. sbs



「알뜰살림 장만퀴즈」 담당PD인 전수진(25)씨는 “동풍문화사의 「알뜰살림 주부퀴즈」를 참조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펴낸 「알뜰살림 장만퀴즈」는 이미 출제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지요. 하지만 주부들이 실제생활을 하면서 의문을 갖는 문제들을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동시에 상식도 얻을 수 있어서 주부들에게는 유익할 것입니다”라며 프로그램참가를 희망하는 주부보다는 생활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주부들에게 책을 권한다.

일명 크로스워드라고 불리는 빈칸에 낱말채우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책으로는 강주현씨가 펴낸 대일출판사의 「알뜰살림 낱말퀴즈」와 「낱말맞추기퀴즈」 등이 있고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속속 영어퍼즐」(W.클락, 청목)은 영어단어로 퀴즈를 진행하고 있다.

「낱말맞추기퀴즈」는 중앙일보에 연재됐던 것을 펴낸 것이고 「알뜰살림 낱말퀴즈」는 거미먹이, 유명인, 나라이름, 범죄자, 우리말, 고사성어, 산이름, 동물이름 등을 문제를 푼 후에 2차로 알아 맞추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도형의 모양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독자들의 흥미를 지속시켜주고 있다. 또 「속속 영어퍼즐」은 영어 단어나 문장을 통해 재미있는 110가지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또 다른 영어공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지적게임으로서의 낱말맞추기는 학습에 도움

“크로스워드는 시간의 여가 틈틈이 누구나 재미있게 풀 수 있는 ‘지식놀이’로, 온가족이 함께 문제에 몰입, 의논하면서 풀면 가정의 화목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대일출판사의 한 출판인은 말한다.

이런 형식의 퀴즈는 여러 퀴즈책속에 한 장을 따로 마련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퀴즈 형식으로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퀴즈를 다룬 책 중에서도 그 중수가 가장 많은 것은 년센스나 유머를 가미한 도서들이다. 이들 도서는 상식적인 머리가 아닌 상식을 뒤집는 해답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책으로는 「년센스퀴즈 두뇌회전퀴즈」(홍구암, 대일) 「유머퀴즈」 「유머가요퀴즈」(강주현, 대일) 「퍼즐아카데미」(전세계천재그룹, 살림터) 「소화제 먹고 체한 사나이」(강주현, 오성) 등이 있다. 이중 「유머가요퀴즈」는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노래의 제목속에 숨어있는 사연들을 모아서 퀴즈형식으로 만들었는데 「달팽이모형퍼즐」 「가수이름 알아맞추기퍼즐」 등 24가지 형태로 구분, 기술하고 있다. 이련류의 책을 주로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의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생활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이야기들을 소재로한 퀴즈이긴 하지만 사고의 반전을 통해 답을 얻기 때문에 두뇌운동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답식퀴즈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로는 대일, 예문당, 청목, 금하출판사 등이 있고 저자로 홍구암, 강주현씨가 이 부분에서 정평나있는 필자로 통한다.

이련류의 책들은 창조적사고를 키우기 위한 상식과 경험, 그리고 자신의 집중력을 동원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재미가 솔찮게 있지만 작가 발굴과 다양한 형식 개발은 각 출판사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 지적되고 있다.

— 이성수 기자